



祝 辭

전기설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윤석 회장님! 설계협회의 전임 최창근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회원 여러분!

오늘 전기설계협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협의회가 심혈을 기울이셔서 제정한 "국제규격 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설계기준"의 발간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년 초에 올해가, 100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그러한 무더위는 없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젠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새벽 연천군 GP 내무반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되어 젊은이

8명이 꽃다운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자식을 軍에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모든 부모나 가족들은 가슴을 조이고 큰 충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 각국은 과거에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국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국의 제품이 자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역장벽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WTO 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는 동일한 무역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재편되었습니다.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또한, 국제환경은 더 이상 자국의 승인제도가 시장개방의 방파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즉, TBT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국의 형식승인제도를 일치, 내지는 조화시키려는 "형식승인 상호인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술기준을 국제적인 표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하고, 각국의 기술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조속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외국의 기술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외국의 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국내의 기술기준을 선별적으로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협의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에서 배포된 IEC 국제규격 개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설계기준"에 대해서 협회가, 그동안 협의회 측에 경제적지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특히, 김윤석 의장님께서 지난 5월 업역별 대표자 간담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향후 동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될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정기총회는 설계업계의 지난해를 결산하고 금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협의회와 우리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혜안의 눈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설계업의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 받은 영예의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0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 희 평